일 주 문



부산전법도량 4대 의장

목종 부산 대광명사 주지 스님은 11월 28일 대광명사서 열린 부산전법도량 의장 이취임식서 제4대 의장에 취임했다.



샤카디타 송년의 밤

본각 샤카디타코리아 공동대표 스님은 12월 17일 오후 5시 행복마을 동사섭 서울센터서 '송년의 밤, 샤밤샤밤'을 개최한다.



군포교 기금 기탁

김규칠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1월 29일 군포교 진흥기금 7000만원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기탁했다.



광희학원 이사장 추대

최용춘 前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11월 17일 학교법인 광희학원(동해중 · 고, 한중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공불련 14차 봉사의 날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2월 11일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제14차 사회봉사의 날'을 맞아 급식 · 청소봉사를 실시한다.

"절차탁마로 국제포교 역량 강화"

Interview

박홍우 前 대전고법원장, 신임 국제포교사회장 선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개인의 학문이 완성되지 않듯이 포교사를 품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제포교사들은 더 탁마해서 능력을 강화하고, 설득력 있게 외국인 포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국불교세계화와 국내 외국인포교를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으로 박홍우 前 대전고등지방법원장이 선출됐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회장은 11월 26일 열린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서 만장일치로 제10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부터 2년간.

박 회장은 소견을 통해 국제포교사회 운영기조로 회원 역량강화와 종단 연계를 통한 소외계층 포교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국제포교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국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며 "역량강화를 위한 탁마에 나서야 한다. 향후 방안은 회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 다문화 포교 종단 연계해 활동 극대화 "회원 의견 적극 수렴할 터"

박 회장은 이어 "국제포교사회 자체활동이 중요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국제포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종단과 연계해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회장은 당나라 문인 유우석(劉禹錫)의 글 '누실명(陋室銘)'의 한 구절을 인용해 회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포교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있으면 명산이 되고,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있으면 신령스럽다고 했다. 불교의 수처작주(隨處作主)를 항상 마음에 새겨 국제포교에 앞장서자"고 당부한 뒤 "조직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포교사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겠다. 이는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홍우 신임회장은 신심 깊은 불자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7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과 1986년 동대학 대학원서 헌법학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3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불교계에서는 법조계 재가불자단체인 서초반야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국제포교사를 품수했다. 2013년에는 (재)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독거노인 위한 김장 나눔

관음종복지재단, 관내 60가구 전달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이사장 홍파)은 11월 30일 서울 낙산 묘각사서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는 숭인1,2동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층 60가구 전달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은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안양교도소 제71회 교정의날 기념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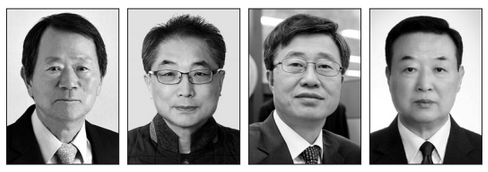


해동불원장 대은 스님은 11월 22일 안양교도소(소장 김안식)가 주최한 제71회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교정교화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은 스님은 1976년 인천소년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교정 활동 중이며 재소자를 위한 설법, 상담, 생일잔치, 염불경연대회와 월간 〈생활속불교〉를 발행해 전국교도소에 보내고 있다. 윤호섭 기자

창원불교, 시민불교문화상 발표

12월 19일 마산사보이호텔서 시상식



김현우 현태영 이재달 한성기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11월 30일 '제26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문학상은 김현우 경남소설가협회 고문, 예술상은 현태영 창원예술극단 대표, 언론상은 이재달 MBC경남 보도국장, 행원상은 한성기 진해예총 고문(창원나래실버악단장)이 선정됐다.

김현우 소설가는 1964년 월간 〈학원〉에 장편소설 '하늘에 기를 올려라'로 등단해 11권의 소설집 및 동화집을 발간했다. 현태영 연극연출가는 1984년부터 70여 작품 연출과 희곡 창작에 매진하고 경남연극 발전과 후진양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달 보도국장은 1990년부터 취재기자, 취재부장, 보도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한성기 고문은 1991년부터 진해예총 임원과 창원나래실버악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실버세대를 위한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자선콘서트 공연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마산사보이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선암사 사수 · 종단 화합 동참 결의

2016 태고종 전국승려연수교육 1천여 명 참가

11월 24일 선암사서 열린 '태고총림 선암사 수호 및 종단 발전 결의 2016 전국승려연수교육'에서 참석자들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종단의 총림이며 수행정진의 근본도량인 선암사 수호에 전 종도가 합심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사진 아래〉

이 자리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전에 선시불심(禪是佛心), 교시불어(敎是佛語), 율시불행(律是佛行)이란 말이 있는데 선암사 전통을 살펴보면 선과 교, 율을 겸해서 교육하던 유서 깊은 도량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천년고찰 선암사의 전통과 역사, 주권을 지켜나가는데 한 발도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전 태고종도는 근본도량 선암사를 영원히 수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인사말서 "예로부터 우리 종단은 법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 종도가 부종수교의 굳은 결의로 힘을 합해 이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당면한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 만 18세부터"

생명나눔, 광동高서 '조혈모세포기증 교육'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이 실시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25일 남양주 광동고교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실시하고 400여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사진 위〉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검사기획팀 소속 한진우 씨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설명했다. 한 씨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까지 희망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성인이 되는 고3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연 사이가 아니면 세포 조직 적합성 항원이 작동할 확률은 수만 분의 1로 매우 희박한 수준이다.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는 행운이 생긴다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군산 종교계, 사랑담은 김장

11월 22일, 공무원 · 종교인 · 기업인 함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와 군산시 공무원, 지역 기업들이 11월 22일 군산 공설운동장서 '화합과 희망의 프로젝트 사랑나눔 김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4대 종교인을 비롯한 참가자 250여 명은 김장 5000kg(500박스)를 담가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500여 곳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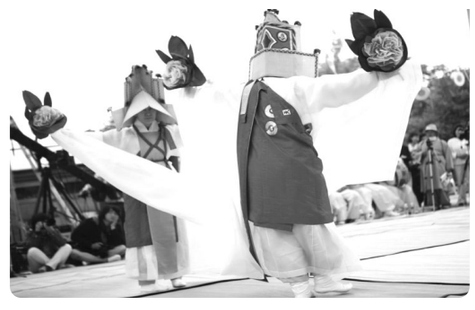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